

선거혁명 민주화의 필요조건

교수논단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제언

실라파주의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야에서 종합정리해 발표한 총선거법에는 언제가 실현될지 모르는 계획과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다. 머나먼 미래의 청사진도 있고 꿈으로 끝나고 말것같은 희망사항도 있다. 이제는 과거에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 되었는지를 국민들도 챙겨야 한다. 그래야 무책임한 공약을 함부로 남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문제는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여야정치인들은 중앙당의 공약은 공약이고, 득표는 전혀 별개였다는 인식 아래 온갖 불미한 행동을 지난 40여년간 행하여 왔다. 이같은 구시대적인

로 보도되고 있다. 88년 총선비용은 1인당 GNP로 따져 여당의 경우 미국 하원의원 선거비용의 15배, 일본중의원원의 5배가 된다. 야당의 경우 미국의 약4배, 그리고 일본의 1.25배가 된다.

한국의 선거비용은 매년 소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번선거에서는 여야가 후보당 30~40억원이 들었으니 하니 지난 13대 총선때보다 배이상 늘어난 셈이 된다. 이런 정치가 되풀이 되다가는 경제가 견디어 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세에 대한 회의나 불신이 심화되어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돈에 팔리지 않는 주권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돈받고 표를 찍어주는 행위는 정치권에 부정부패를 조성하는것 밖에 되지않는다. 국민들은 힘을 결집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식을 바꿀수 있는 힘은 국민 스스로의 자각과 이를 실천할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공명선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의 질서있는 운영과 안정을 촉진하여 결국 국민화합과 민주화를 기할수 있다. 반대로 금품살포와 불법과 타락으로 얼룩진 혼탁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국민적 정치불신과 도

부정공천·금권·타락선거 여전 정치쇄신 위해 국민, 큰 몫 해야

발상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전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인사공격이나 흑색선전의 비방은 없어져야 한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질의 인사공격을 하게 되면 일반당원들은 육신과 폭력으로 맞서게 된다. 유언비어를 그럴듯하게 흘리는 자들도 이제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더무늬없는 거짓과 흑색선전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선동하는 저질의 후보자는 투표로써 추방되어야 한다.

자율화라는 전환기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더이상 정치가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경제적 어려움을 예고하는 특수한 여건속에서 치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때 더욱 심각해진다. 이때문에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안쓰는 선거를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돈안쓰는 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으로 총선에서 승리할때 비로소 정당과 정당원들은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는 진정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선거문화와 정착시키기 위해서 집권당이 앞장서야 할일은 많다. 정치적 특권이 주어진 집권당에 그만큼 도덕적 의무도 무겁게 가해지기 때문이다.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는 새시대를 향해 내다 보지 못하는 정치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국민의 정치참여와 실망을 주는 금권에 위력을 가해주고 있다. 88년 4월총선때 여당의원의 경우 20억원정도의, 야당의원의 경우 5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이 든것을

이런 총선부터 저질의 정치꾼과 정장배를 몰아내는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일부터 해야한다. 민준기 <정경대교수·정치학>

덕 및 윤리와 타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경제파탄 등을 몰고 온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국민의 후원이 없는 정치풍토의 개혁을 기대할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마지막 책임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오늘날의 혼탁한 우리정치풍토에 대한 책임도 결국 국민이 함께 나눠야 한다. 돈이 좌우하는 타락선거에 대한 책임도 절반은 유권자가 져야한다.

신부감 수입합니다!

은총의 인구-특히 여성-가 줄어들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로 정부가 펴낸 '도표로 본 한국농업'이란 자료란 보더라도 70년에 1천4백만명에 달하던 농촌인구가 90년에는 6백66만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특히 15살미만의 인구는 70년 6백51만8천명에서 90년 1백73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보여준다. 농민들이 자신의 피와 땀인 쌀을 불태웠다는 것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가장 극단적 행동이 아닌가. 농촌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농촌의 위기는 더욱 '크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제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등을 벌이고 있지만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는 농촌불안은 시간문제이다. 농촌은 예전에 생각했던 푸름으로도 우리가 돌아갈 인정많은 뜻깊은 고향으로도 남아있지 못하다. 농촌총각의 결혼을 위해 '전국 농촌총각 결혼대책위원회' (이하 결대위) 등이 만들어지는 나라를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농촌을 살리는 일은 시급함을 지나 너무나 절박하다. 그동안 경제발전에 가려져 이차적으로 생각되어왔던 농업에 이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기필코 농촌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고 '결대위'가 해체되는 날이 와야한다.

그렇지 못한면 언젠가는 '농촌의 신부'를 '농촌의 총각'을 그리고 '농촌'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날이 오게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중성에 침식된 시대인식

◇르뵘 — 학교주변 사회과학 서적 선호도 분석

본고는 본고를 중심으로 겨울 방학동안의 사회과학서적의 판매량을 집계, 가(假)순위를 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사회과학도서의 전반적인 추세는 문예를 쪽이 감세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속에 나타난 인간미를 다룬 '사람아 아 사람아'와 '닥터 노먼베손'은 방학이전부터 꾸준히 많이 읽히는 도서로서 타교에서도 선봉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아 아 사람아'는 이상과 신념을 위해 가담했던 거대한 정치운동에서 삶의 좌절을 겪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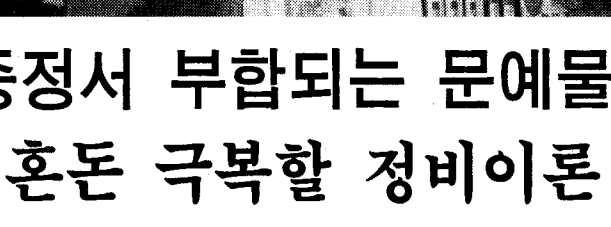
자. 이는 학생들이 정세에 대한 계속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중 '길'지는 꾸준히 판매부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잡지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말'지를 능가하는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1991년 12월10일부터 1992년 2월24일까지 본고를 중심으로한 사회과학도서의 베스트셀러 1위는 권운상씨의 '녹슬은 해방구'로 나타났다.

'녹슬은 해방구'는 이전에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나, 항일유격대이나하며 쉽게 규정지워버린 그들의 정초와 운동, 생생한 삶과 불같은 꿈 절절한 죽음 등 한반도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룬 작품이다. 다른 빨치산 기록이나 소설들이 1950년대 한시대의 단편만을 그린 것에 비해 '녹슬은 해방구'는 그 첫사건의 무대를 비전향 좌익수들이 있는 특별사감에서의 회상으로 시작해 1940년대부터 80년광주쟁까지 40여년간의 기간을 다룬것이 특색이다.

'녹슬은 해방구'는 타교에 비해 본교에서 비교적 많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본교학생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지루하고 딱

딱한 이론서보다는 비교적 부담 없는 역사소설로서 재조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도서의 전반적인 추세는 문예를 쪽이 감세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속에 나타난 인간미를 다룬 '사람아 아 사람아'와 '닥터 노먼베손'은 방학이전부터 꾸준히 많이 읽히는 도서로서 타교에서도 선봉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정서 부합되는 문예물 강세 정세 혼돈 극복할 정비이론 요구돼

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957년 반우투쟁, 문화대혁명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중국을 배경으로 인간애를 참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닥터노먼베손'은 세균이 든 사회체제인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에 맞선 탁월한 의사이자 혁명가였던 닥터 노먼베손의 생애를 쓴 작품이다. -- 이외에도 박노해 석판대책위에 써 묶은 '박노해 글모음집' '민들레처럼', '故조영래의'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전직기자의 방북체험기 '더다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구미유학생 간담다사건의 사형수 김성만의 옥중서한 '사형수작곡, 양심수작사'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집으로는 푸른숲에서 발간한 신동호의 '겨울경춘선', 김형수의 '가뭇속 쉬었다 간다는 것' 등과, 김남주의 '사람의 거처', '시와 혁명' 등이 많이 읽히고 있다.

노신의 작품집 '청년들이 나를 믿고 오르거라', '아침꽃을 저녁에 줘다'도 반응이 좋은 책이다. 한편 '말', '길', '사회평론' 등의 월간지나 '우리사상' 등의 무크지들도 많이 팔리는 책들이

서도 많이 팔린 책들이다. '한국 전위 조직 운동사'는 1920년 조선공산당에서부터 90년대 한민전까지 국내의 전위 조직 운동사를 최초로 정리 발간한 책이다.

순위	책	지은이	출판사
1	녹슬은 해방구	권운상	백산서당
2	사람아 아 사람아	다이후유임	다섯수레
3	닥터 노먼 베손	에드워드, 시드니그든	실천문화
4	한국 전위조직 운동사	이수현	동해
5	새로쓰는 성 이야기	공동집필	또 하나의 문화
6	민들레처럼	박노해	노동자의 벗
7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조영래	창작과 비평
8	더다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조광동	지리산
9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	김성만	힐
10	겨울 경춘선	신동호	푸른숲

신학기 교재를 완벽히 갖추고 대학인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 6. 문예관·외국서적관
- 5. 자연관·컴퓨터·레코드
- 4. 인문관·방송대교재·문구
- 3. 사회관·학생관
- 2. 기독교관
- 1. 예매관·잡지

시·소설·수필·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미국·일본·유럽 수입원서
농업·공업·가정·의학·전기·전자·토목·건축·기계·아시아권 수입교재(ISE)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사무자동화기·LP·CD·카세트테이프·오디오부품
문학·종교·역사·철학·사회·교육·심리
문구·팬시용품
정치·경제·행정·법률·매스컴·세법
중고 교재·아동도서
성경·신학·교양
목회·설교·찬송가
공인안내
국내외 정기간행물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위

종로서적

110-122 종로구 종로2가 84-9 · 대표전화 733-2331

·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9:00 일요일·공휴일 오전 11:00 ~ 오후 8:00 · 독서인을 위한 서비스 : 도서안내(733-3061) / 작가와의 대화(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 통신판매/독서정보 및 교양지 주간·월간·계간 발행 무료 배포/특판(디자이너 납품)

컴퓨터그래픽스만 가르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문가가 되실분은 지금 오십시오."

무료특강

- 일시: 3월 5일 (목) 오후 2시, 3시 (2회)
- 장소: 시지아카데미 프리젠테이션 룸
- 강사: 유명 대학교수 및 아티스트
- 특강 내용: 디자이너의 컴퓨터활용 가능성
- 신청선: 작30명 (전화신청 가능)
- 무료 공개 강좌

시지점컴퓨터디자인아카데미

540-3333 지하철압구정역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계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에 제대로 시키는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출입을 할기로 작정하신 분이려면 외면할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볼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이요.

들어가니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외쳐 보게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이것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수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22기 수강생모집

- 개강: 1992. 3. 4.
- 강사진: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일 75분 주 5일
- 반 편성: 8 ~ 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재단법인 연교교육원 언어교육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빌 737-4641(대)

독일유학연수

오스트리아·이태리·스페인·음악·미술·전통·어학·음악·연수

200개 분교와 대학으로 연수주선 ※ 독일대학연수는 4월까지 접수

설명회: 3월21일, 4월11일 오후 3시

미국 유학연수

인류구이는 세계25개국에 240여개의 분교를 둔 세계최대규모의 외국어전문교육기관임

매월초개강 inlingua® 독일어

어학중점서 없는 독일 유학이 불가능함. 어학중점서 독일대학에서 인정

회화·문법·독해·ET·반·유학비·독자·PNds

이태리어 회화 문법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인류구아 서울 분교

종로 733-3804, 722-7368

관철동 19-19 서울빌딩 (종로서적점 세번째 골목)